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청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57회 임시회

멤버위 구성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직무연찬 실시

충청북도의회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도의회 방문에 따른 협의내용,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 준비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안, 도의회 자문위원 증원 요청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고, 충북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사업예산 편성 추진, 의



▲ 2월 22일 제 257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원발의 조례안 관련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 사 공정상황, 컨벤션시설과 도정 주요사업 현황에 며 송절중학교 및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신축공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창립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에서는 3월 8일 대전시의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생존권 위기에 몰린 지방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라!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지의 신·증설 허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지 못할 시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 하겠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 국토면적의 1/9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추기능이 과밀 집중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집적(集積)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은 차별화된 국가정책의 소외감 속에서 산업기반의 붕괴와 공동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의 기회를 확산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昨今)의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 둘씩 완화하고 있으며, 애써 씹을 티운 ‘균형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전에 지방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 놓고 있어 국운(國運)을 생각하는 마음에 탄식(歎息)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남용하여 지방을 억압하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추진이 중단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실시하라.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산업 인프라 확충

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을 선정 우선지역으로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적극 실시하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방의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이 하나되어 더불어 잘사는 그 날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 3. 8.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 일동



개 회 사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에 찬 정해년 새해도 어느새 입춘이 지나 봄을 재촉하는 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 교육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 사항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소비와 투자가 되 살아나도록 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때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곧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기업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생산력을 높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

어야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이 확정 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청주 공장이 조속히 증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도정 및 교육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의견들을 청취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적절한 시책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도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대안들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

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도민들의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연예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생명의 귀중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보다 큰 협조와 성원 속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봉사의정 구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장 시책 추진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댜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충청북도의회는 2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댜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댜특위위원 9명(위원장 민경환 의원, 부위원장 김화수 의원, 위원에 김인수, 김환동, 박영웅, 이규완, 이언구, 임현, 한창동 의원)을 선임하였다.

이날 구성된 댜특위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이며 충주댜과 대청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댜 주변지역의 개발과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댜 주변 지역 주민지원 및 개발대책, 지원금 확대,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댜 수질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관련사항과 입법 청원을 통해 댜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댜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민 경 환 위원장
(댜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8대 도의회에서 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댜 주변지역 개발 등 댜 관련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댜 관련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도에는 충주댜과 대청댜 등 2개의 대형댜이 있으며 이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에 인하

여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댜 상류지역의 수해피해와 주변지역의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댜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댜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및 개발, 수해예방대책 강구,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댜수질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댜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댜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 화 수 부위원장



김 인 수 위원



김 환 동 위원



박 영 웅 위원



이 규 완 위원



이 언 구 위원



임 현 위원



한 창 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도정/교육시책에 대한 질문·답변 실시키로 - 제258회 임시회에서 (3.20~3.21) -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중 2월 22일(제1차)과 2월 28일(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58회 임시회(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에서는 3월 19일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3월 20일과 3월 21일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며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와 당면업무 협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중 일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현지교통비와 일비로 달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일비로 통일하며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은 정정·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담 주변지역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담 주변 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 관련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7년 2월 28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6개월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2월 22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 하고 있다.

개정안 심사 ▶
2월 22일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입법 발의로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 개정



▲ 간담회 2월 22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열린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도 균형발전본부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재정보전

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2월 22일에는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청주국제공항의 교통 인프라 거점 확보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청주국제공항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인접지역간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협의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충북선과의 연결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 계획, 국토 중심지역으로써 복합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충북·경북 내륙지역의 부존자원개발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중부내륙선 철도 신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도민의견 수렴 다변화, 중앙정부 및 도내 자치단체간의 교통물류인프라 확산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계획수립과 차질없는 실행을 촉구하였다.

2월 23일에는 일제강점 당시 우리 민족정기 말살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고유한 지명, 산명, 천명, 도로 등 개명 민원

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 검토 및 관계관들의 의견수렴 청취 후 민원인의 진정요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2월 26일에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원입법(의원입법 6인)으로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40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세징수율을 제고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또는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6월과 12월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절중학교 및 Bio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현지확인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제257회 임시회중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외 2건의 위원 추천 및 당초 2007년 3월 신축 완료 예정이었다가 9월로 연기된 송절중학교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내에 신축중인 충청북도 Bio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다.

2월 2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 충북도청 및 청주의료원에서 의뢰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외 2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임현의원, 충청북도여성발전계획 자문위원으로 최미애 의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같은 날 오후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정서순화, 그리고 Bio 산업 현장학습 시설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밀레니엄 타운내에 건축 중인 충청북도 BIO 교육문화회관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 현황을 보고 받고 도내 열악한 공연시설 현황을 감안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공연시설을 갖춰 줄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른 도의회의 지원 협조 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2007년 9월 개교 예정인 송절중학교 신축현



▲ 현지확인 2월 23일 송절중학교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장을 방문, 공사 진척 현황 및 공사 완료 전 조기개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사유를 보고 받고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

경제관련재단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조례안 심사 ▶

2월 23일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심사 하고 있다.



◀ 간담회

2월 23일 경제관련 출연재단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련 재단 임원과의 간담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 23일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현안사항을 중점 토의하였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기술혁신의 거점기관화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하여 경제특별도 구현의 전진기지 역할을,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충북형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

도하겠다고 각각 보고하였다.

각 재단별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서 의원들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활성화,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 전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월 23일 오후에는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발의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관련 법령과의 미비사항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고,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자매결연 체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6일 오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 간담회, 타 시·도 컨벤션 시설 견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 22일에 실시된 집행부와 의 간담회에서는 2008 한국관광총회 충북 개최,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한 전통건축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의 성공 개최는 충북관광이 세계속에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이며, 향후 5년간의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중부내륙의 휴양·레저의 거점 지역으로 충북이 급부상하는 절대 절명의 호기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응의주도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충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2월 26일~27일 이틀간 우리 도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대구 EXCO, 창원 CECO, 광주 김대중 컨벤션 시설을 방문하였다.

본 방문에 있어 주안점은 컨벤션 건립의 필요성과 지역의 파급효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시설규모, 기존시설의 현실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운영 형태별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및 경제 분야의 파급 효과, 방문 시설별 가동율(전시시설 및 회의장 운영율) 및 경영상태, 제3섹터, 위탁관리, 지방공사 등 운영 형태별 여건 및 효율성, 적절한 시설배치 및 공간 활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한편,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및 제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도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추진에 매진하였다.

‘2008 한국관광총회’ 충북 성공 개최 주문

현지방문 ▶

2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 간담회

2월 23일 생명산업추진단으로부터 전통건축박물관건립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예산제도 연찬 실시



▲ 2월27일 예산주무사무관으로부터 2007년도 사업예산제도 및 사업예산편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주식 의원)는 2월 27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연찬

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대옥 충청북도 예산주무사무관의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자체토론을 통해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도 도민교육계획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민교육(2/4분기)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교육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 정 명	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일수	가수(개)	인원(명)	비 고
의식교육	자매결연마을지도자반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및 농촌관광마을 지도자	4. 10~4. 11	2일	1	50
	노인복지반	노인회 임원·회원	4. 24, 4. 25	1일	2	300
	자원봉사자반	자원봉사단체 회원	5. 4	1일	1	180
	재래시장중사자반	재래시장변영회 임원·시장상인	5. 15~ 5. 16	2일	1	40
	여성단체지도자반	여성단체임원·회원	6. 1	1일	1	120
	주민자치위원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6. 13, 6. 14	1일	2	300
농기계훈련	공무원농기계반	행정·지도직 공무원	5. 9~5. 11	3일	1	30 비합숙 지도직반 개칭
	현장농기계반	충주, 괴산, 영동, 단양 (영동, 단양군은 오지마을)	4. 19~4. 20 4. 26~4. 27 6. 20~6. 21 7. 10~7. 11	2일	4	80 순차적 실시
	여성농업인농기계반	도내 여성농업인 희망자	6. 26~6. 27	2일	1	30
	학생농기계반	도내 농업계 고교재학생 (제천, 보은)	5. 29~5. 31	3일	1	20

☞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

• 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 043)220-5282~5
220-5292~7

• 시·군 : 도민교육담당부서
• 읍·면 : 총무 및 산업담당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loti.cb21.net>

조례안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40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세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낙후 지역 개발 사업 또는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6월과 12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

〈주요내용〉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농산물” 정의 신설.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대행.
융자금의 이율 인하 : 연 2% → 연 1.5 퍼센트 단,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연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을 하향 조정 : 6%이상 → 1% 이상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율 인하 : 연 2% 연 1.5%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 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함.

〈주요내용〉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위탁 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융기관으로 개정.
기금의 사용 등 : 기금 중 일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추가.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융자심의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 심의 추가.

〈수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조문내용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함.

충청북도 광서장족자치구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對중국 교류를 중국 서남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對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발전
공무원, 경제, 농업, 임업, 대학, 청소년, 체육, 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공동발전 도모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

충청북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대 주변지역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대 주변지역 개발 등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대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대 주변지역 개발 대책에 관한 사항
수해예방을 위한 종합 방안 모색
대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에 관한 사항
대 수질보전 및 자연생태계 관련사항 등

칼럼



정 상 완
(극동정보대 교수)

지방의원 유급제 1년에 부쳐

실시돼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하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적 한계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전문성 부족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에 역동적 발전역량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질적 소득수준은 유급제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유급제 본래의 원 취지가 퇴색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청북도 의회는 유급화가 되기 전 3,12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3,996만원으로 책정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더욱이 유급제가 지방의회 의원의 실질적 가계도움에는 못 미치고 역할과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질적 처

우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제도는 나라마다 통일적이라기보다는 각기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 기후현의 경우 의장 월 1,044만원, 의원 8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비서관 보좌관 고용, 자료구입, 연구, 의정활동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정무조사비라는 항목으로 월 35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따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듯이 의원들이 개인의 권익보다 도민

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와 견제, 타협과 협조를 바탕으로 선진의회 구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명확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겠고, 지방의회 또한 기존 지방의회의 부정적 모습에서 벗어나 공부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겠다.

지역별 광역의원 보수 현황

(단위: 만원)

지역별	보수액	지역별	보수액	지역별	보수액	지역별	보수액
서울	6,804	부산	5,637	대구	5,040	전남	3,960
인천	5,100	광주	4,213	대전	4,908	경북	4,218
울산	4,523	경기	5,421	강원	4,215	경남	4,246
충북	3,996	충남	4,410	전북	4,068	제주	4,138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들의 활동으로써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나 실시 9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행(紀行)



임 현 의원
(교육사회·영동 제1)

킬리만자로의 높이는 5,895m, 눈에 뒤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 봉이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누가에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이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헤밍웨이가 쓴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서두에서 화두처럼 던져놓은 글이다. 헤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기슭인 케냐의 암보세리에 머물면서 쓴 이 소설은 돈과 여자로 헛된 인생을 살던 해리라는 작가 지망생이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중 다리를 다쳐 죽어가면서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산을 좋아했다. 지리산 중종등반에 이어 세계의 지붕 네팔 히말라야 산맥중의 일부인 안나 프르나 트레킹 코스도 마쳤다. 그런데 문득 언젠가 읽은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 생각났다. 뜨거운 적도에 위치하며 하얀 눈에 덮힌 킬리만자로라는 어떤 산일까?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말라붙은 표범의 시체를 마음속에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을 했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8월 4일 필요한 옷가지와 침낭 등을 챙겨 집을 나섰다. 방콕을 경유하는 약 17시간의 긴 여행 끝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 피로를 풀 여유도 없이 그곳의 유일한 한식집에서 새벽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탄자니아 국경으로 이동했다. 4시간여를 달려 케냐 국경마을인 남방가에서 탄자니아로 가는 입국 수속을 밟고 다시 케냐의 국경을 넘어 산하나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2시간여 달려 탄자니아 제2의 도시 아루샤에 도착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가다

푸른빛을 상실한 나무들과 지구상에서 가장 웅감한 종족으로 킬리만자로의 전사라 불리는 마사이족은 아루샤로 이동하며 간혹 볼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였다.

지저분한 도로변 마을은 인도의 시골마을이나 네팔의 산골 마을과 별반 다를게 없다. 이튿날 목적인 킬리만자로의 입구 마랑구 게이트에 이르러 입산신고를 마치고 산행에 들어갔다. 일행 21명에 짐을 운반한 포터와 현지 요리사가 따랐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고산병과의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느 시점에서 고산병이 올지 모르니 처음부터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물을 하루에 최소한 3리터를 먹고 이를 배설하기 위한 이뇨제약까지 먹어야 하고 답답하고 해서 옷을 벗어도 안되고 음식은 가능한 충분하게 먹어야 한다.

또한 산행 중 가장 지켜야 될 중요 수칙이 천천히 걷는 거다. 생각 같아서는 후딱 오르고 싶었지만 고산병이 오면 바로 내려 와야 한다. 크고 둥근 나무가 즐비하고 나무엔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열대 우림 같은 정글지대를 지나, 산행 출발 3시간 만에 첫 산장인 만다라 산장(2,727m)에 도착했다.

이튿날 아침 준비해준 아침을 먹고 다시 산에 올랐다. 여전히 정글지대를 통과하는 길이었다. 산을 오르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부색과 국적이 서로 달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반갑게 “짬보 짬보”라고 인사를 교환한다. 우리나라말로 “안녕하십니까?” 또는 “수고하십니까?”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글지대가 끝나고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길을 오르는데 저 멀리 눈 덮힌 킬리만자로의 키보산 정상(5,896m)과 그 옆으로 마웨지봉(5,149m)이 빼죽 보인다. 정상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약 6시간에 걸친 힘든 산행 끝에 해발 3,720m의 호롬보 산장에 도착했다. 비교적 큰 산장 한 칸에 일행 모두가 한방에서 잤다. 남녀 각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널부러져 자는 모습은 민망스럽기도 하다. 산장에서 휴식중이라도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안된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간단히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양치질이나 할 따름이다 등산객수에 비해 식

탁수가 적어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이 교대로 시간을 달리하여 식사를 해야 했다. 식사준비는 여행 팀별로 따라온 요리사들이 각자 준비를 하고 적은 식탁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기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이 보였다. 햇빛에 반짝이는 얼음덮인 정상과 구름이 발아래 깔려 보이는 호롬보 산장주위의 경치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고소적응을 위해 하루를 쉬며 4,200m 까지만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 산행을 하였다.

이곳에서 먹을 물을 준비해 마지막 산장인 키보산장을 목표로 다시 산을 올랐다. 여기서부터는 다소 산이 험하다. 관목지대를 지나 산위의 사막과 같은 황무지 길을 오르게 된다.

저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인다. 풀 한 포기 없이 그저 흙과 돌, 때로는 흙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 길을 한참이나 오르게 된다. 힘든 코스인만큼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지만 산 아래에서 올라다 보았던 정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희열이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약 7시간에 걸친 산행 끝에 마지막 숙박지인 키보산장에 도착했다.

햇빛은 따갑고 그들은 추운 것이 얼 굴타기에 안정맞춤이다. 이곳의 밤은 무척 추위, 가지고 간 모든 겨울 옷을 꺼내 입어야 했다. 밤 12시 30분 어둠 속을 가르며 정상으로 향했다.

한줄기 헤드라이트 빛에 의존해 거대한 분화구 경사지를 한걸음씩 옮기며 정상을 향했다. 주변은 온통 칙칙 같은 어둠에 싸여있고 하늘엔 별들만이 총총하다. 앞 사람의 뒷발꿈치만 보면서 계속해서 올랐다. 사람들 간에도 말이 없다. 조금이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그재그 길을 한 시간 쯤 올랐을까? 고소병에 의한 낙오자가 더 생긴다.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즉시 하산을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현지 포터가 충분히 배치되어 환자가 있을 때마다 즉시 함께 하산을 시킨다. 그렇게 오르기를 6시간, 구토가 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치 술에 취한 증상과 같은 것이 내게도 고소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상을 눈앞에 두고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힘들어 왔던 지금까지의 보람과 정상을 앞두고

뒤돌아 선다면 평생을 두고 억울할 것 같은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정상에 올랐다.

해발 5,685m 킬리만포인트! 수 만년의 분화구가 눈앞에 펼쳐지고 가까이엔 얼음벽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그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붕이란 말인가? 진정한 아프리카대륙을 품고 우뚝 선 킬리만자로란 말인가? 이 감격과 풍경을 눈으로 보고 내 머릿속에 든 제한된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에 황급히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 순간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비디오 오카메라를 챙겨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장면을 찍지 못하면 나는 돌아가서 누구에게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조차 자랑할들 믿어 줄 수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체온으로라도 녹여 카메라를 작동시켜 볼 요량으로 카메라를 가슴에 품었다. 이런 속내도 모르는 채 현지 포터는 빨리 내려가자고 보챈다. 약 30여분을 그런 상태로 노력하다 보니 하느님도 감동을 했는지 드디어 셔터가 작동을 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광경을 찍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곳의 얼음벽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10~15cm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약 10년~15년 후면 우리 후손들이 만년설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산 길은 다소 쉽다. 호롬보산장에서 1박을 하고 우리가 처음 올랐던 마랑구 게이트에서 산행이 끝났다. 우리와 함께 7일간을 산에서 고생을 같이한 포터·가이드와의 이별의 시간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갔던 옷이나 등산용품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조그만 선물에도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들은 킬리만자로송을 합창해주면서 이별의식을 취해주었다.

이별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모두는 숙연해졌다. 탄자니아의 국경을 넘어 케냐의 암보세리 국립공원 사파리 여행을 끝으로 나이로비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눈 덮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고 노래한 국내 모가수의 노래의 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다.

***본 기행문은 필자가 산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아프리카를 다녀온 후기입니다.**

의원동정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2월 14일~15일 청원군 민회관에서 열린 청원군 농업경영인 회장 및 여성농업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2월 8일 옥천문화원에서 개최된 옥천군새마을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2월 26일 도청에서 열린 충북시장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2월 21일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2007년 한농연 충청북도 대의원교육 참석,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중평 제1선거구)

2월 26일~3월 4일 중평군 일원에서 실시된 중평군 새마을지회 정기총회 주관 및 지역 대표를 행사 참석.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2월 22일 청원군에서 실시된 청원군자유총연맹산악회 시산제 행사 주관,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2월 27일~3월 2일까지 내속리면사무소 등 생대마을조성사업계획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 **김병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3월 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실시된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2월 22일~23일(대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간 협력 방안 모색 및 당면 현안문제 논의.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2월 27일 괴산군 농어민단체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하 및 격려, 당면 농업현안과 애로사항 등 청취.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2월 13일 주성대학 졸업식 참석, 격려사 및 졸업생, 가족, 관계자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2월 27일 대소면의 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당면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2월 17일~25일까지 단양군 일원의 읍·면별 군정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2월 15일 충북과학대학 생활관 개교 및 학위 수여식에 참석, 행사 관계자 격려.



◀ **최광욱** 의원
(한나라 · 비례대표)

3월 3일 모충동 일원의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 참석, 행사 관계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2월 13일 충주시 일원에서 읍·면·동을 순방, 지역 현안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말뚝이 세상말이〉

안중정(眼中釘)과 눈엣가시

몹시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우리는 '눈엣가시'라고 한다. 옛날, 한 사내가 여러 첩을 거느리고 살 경우, 조강지처가 그 첩, 즉 시앗을 두고 이를 때도 역시 '눈엣가시'라 했다.

손끝에 박힌 가시도 아프고 불편함을 참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눈에 박힌 가시아 일러 무엇 하랴. 오죽하면 시앗은 부처님도 돌아왔나 했을까?

안중정(眼中釘)은 '눈에 박힌 못'이란 뜻으로 '눈엣가시'보다 미움의 정도가 한층 강조된 것으로, 후진(後晉)의 송주(宋州)절도사 조재례(趙在禮)의 악정(惡政)으로 인해 생긴 말이다. 조재례는 당나라 말엽의 혼란기에 여류절도사로 하북(河北)에서 용맹을 떨친 유인공(劉仁恭)의 하급 장수였으나, 권력자에게 돈을 바치고 아부함으로써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의 3대에 걸쳐 여러 곳의 절도사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가 송주의 절도사로 있을 때, 가렴주구로 수만 재산을 모은 뒤, 영웅절도사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소문이 저자 거리에 퍼지자 백성들이 모두 가슴을 내리며 기뻐하였다.

“그 악독한 작자가 간다니, 눈에 박혔던 못(眼中釘)이 빠지는 듯 시원하구나.”

이러한 백성들의 여론이 조재례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악정을 반성하기는커녕 분기가 땡중, 오기를 품고 이를 악물었다.

“눈에 박혔던 못이 빠지는 것 같다고? 오냐, 그렇다면 어디 맛 좀 보라.”

그는 조정에 뇌물을 바치고 1년간 더 송주에 유임하겠다고 청했다. 다시 놀러왔게 된 조재례는 백성들에게 발정전(拔釘錢)이란 가외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가혹하게 거둬들였다.

“내가 가는 것이 눈에 박힌 못이 빠지는 듯 시원하다니, 못 빼는 값을 내야 할 것 아니냐?”

발정전이란 곧 '못 빼는 값'이니, 백성들에게 '눈에 박힌 못'처럼 큰 고통을 주고도 그 못 빼는 값을 또 물라하니, 가히 악정의 표본이요 미움의 적(的)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러 안중정(眼中釘)이라 했다. 우리말의 눈엣가시와 상통하는 말이지만, 그 미움의 정도가 한층 강조된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덕을 베푸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선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욕심이 머리꼭지까지 차 있는 사람, 독불장군식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 싸움닭 같은 오기로 뽕뜰 뽕뜰 사람, 잘못된 남의 탓이고 공은 내 덕이라는 사람, 자기책임은 져버리고 무불간섭으로 오지랖 넓은 사람, 감탄고토로 야합과 이탈을 일삼는 사람, 이들이 곧 안중정이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런 인물이 한 개인이라면 주변 몇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미움 받는데 그치겠지만, 단체나 기관, 정권의 요로(要路)에 지도자로 버티고 있다면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 함께 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그런 사람의 지휘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삶 자체도 고통이지만 더딘 세월도 고통이다.

조재례의 유임기간 1년이, 송주 백성들에게 10년이나 100년에 버금갈 만큼

더디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이다. 원망과 탄식,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지옥 같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그 정권의 잔여임기가 1년여다. 영세민과 실업자, 소상공인과 농민, 무주택 서민과 10억대 아파트 소유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까닭으로 원망과 탄식을 토하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한다. 남은 세월이 아득하다고 한다.

국민들의 가슴에 이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눈엣가시 같은 안중정의 존재로 각인된 이는 누군가? 귀족으로 회자되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 혼자서 애국 다 하는 일부 정치인, '민족끼리'에 몸살을 앓는 일부 각료, 말쑥씨에 일가견을 가지신 대통령, 그 중에 누구인가? 오는 12월 이후엔, 이 같은 국민의 고통이 사라지려나? 매번 대선 전에 갖는 기대는 컸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산되는 것도 때면 겪는 일이다. 조재례의 송주 악정은 고을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12월 이후의 우리 국운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눈에 새로운 못을 박고 살 것인가, 아니면 뽑아버리고 편히 살 것인가?

안수길 <소설가>